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

글. 이자와 고타로 사진평론가

구본창의 새로운 시리즈 <탈>과 마주했을 때, 나는 전율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리즈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경력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작품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구본창이 오늘날 한국 사진계에서 대표적인 사진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은 소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련된 테크닉을 보여준 <태초에서> 시리즈와, 유년시절의 기억을 신랄하게 추구했던 <굿바이 파라다이스> 시리즈는 한국 사진계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강하게 느끼게 했던 작업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최근 일본, 미국, 유럽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 사진계에서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시리즈는 그가 이전의 작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출발점처럼 보인다. 테크닉의 장식적 요소들은 완전히 최저점까지 축소되었다. 대신 피사체에 직접적이며 솔직하게 접근하면서, 그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시리즈는 작가가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돌린 최초의 작업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작품은 언제나 자신이 물려받은 한국적 유산이 형성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명료하게 표현했고, 섬세한 자연과의 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이는 시리즈는 문화적으로 민족 특유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인해 그의 전체 작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고 <탈> 시리즈를 통해 작가가 단지 전통 문화를 충실하게 기록하려 했다는 것은 아니다. 작품 전체에서 배어 나오는 비실재적인 분위기와, 피사체들이 중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중에서 부유하는 듯한 느낌은 오히려 작가의 입장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수성을 입증한다. 결국, 우리는 <탈>시리즈가 기록과 예술적인 표현, 현실과 환상,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섞이고 융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탈춤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이미 1500~1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점성술과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탈을 쓴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들은 이러한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남녀에게 이처럼 각별한 힘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탈이다. 탈은 그들에게 특수한 아우라를 빌려주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매개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을 제쳐두고라도,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달하는 광범위한 인간적인 감정은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탈은 단 한가지 표정으로 노여움, 슬픔, 체념, 유머 혹은 다른 감정들을 전형화시켜 나타내며, 등장인물의 얼굴에 예기치 않은 힘을 불어넣는다. 이런 얼굴들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관중들은 울고 웃으며 일상의 근심을 털어버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심오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또한 구본창의 <탈>시리즈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노스탤지어(향수)를 느낀다. 비록 이 시리즈가 일본인인 내가 공유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한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탈이 나타내는 무수한 표정은 어디에서 본 듯하다는 기시감(deja vu)을 주고 있다. 그 얼굴들은 익숙하다. 마치 먼 과거, 아마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마주쳤으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기억과 감정의 근원들을 단순하고 우아하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